

동아시아 중세 불교시의 새로운 광맥

불교로 읽는 古典

임유정의 <백가의집>



허홍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고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새로운 가치를 주는 책이다. 고전의 정의도 국가마다 시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수백 년이 지나도 그 가치가 높은 문학이나 예술작품을 말한다. 여기는 다양한 장르가 포함되는데 중 시문학에서 대표적인 문집이 바로 고려 명종 때 임유정이 남긴 <백가의집>이다.

사실 <백가의집>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렇기에 필자가 <백가의집>을 고전으로 꼽았다면 의아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고전에 속할 정도의 오래되고 중요할뿐더러 불교사료도 많은 연관을 지니고 있으므로 여기서 소개하도록 한다.

하나의 책을 제대로 소개하려면 교역에 해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에게도 행운인지 고역인지 비교적 많은 고전을 새롭게 찾아서 저술을 간행하는 기쁨이 있었다. 새로운 고전을 찾아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생에 드문 행운인데 이를 연구하여 저술을 썼다면 더욱 영광이다. 고역이란 점이 사치스런 너스레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필자는 정년을 맞이한 다음 해인 2009년 '임유정(林惟正)'이란 고려 명종 때의 문인이 남긴 <임제주백가의시집(林祭主百家衣詩集)>이란 문집의 오랜 연구를 마치고 간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17년 전 이 책을 찾아 간단히 논문을 쓰고 전문을 사진으로 소개하였으나 아무도 이를 판독하거나 전부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5년간 고역을 치르면서 판독하고 5편의 논문을 썼다.

<백가의집>은 당과 송 등 당시 동아시아의 문화를 모은 시집으로 집구체의 하나인 '백가의체'로 저술한 책이다. 집구체로 쓰인 고려시대 책으로는 유일하다. 이 책에 쓰인 '집구체(集句體)'란 타인의 시구를 자신의 시구처럼 조합하여 시상을 나타내는 시의 새로운 문체를 말한다.

보통 어느 작가든지 경전이나, 기존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차용하여 시를 쓰곤 하지만, 백가의집에 실린 집구체는 독특하다. 무제한으로 시구를 사용하는 창작이다. 그래서 바로 백가의체(百家衣體)라고 불린다. 이러한 시체는 흔히 모방으로 간주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난이도의 기억과 당시의 유행한 시와 문체를 보여주는 특수한 가치를 지닌다.

이 <백가의집>은 조선시대 '서거정' 등이 펴낸 <동문선>에 책의 일부가 실려 있을 뿐 전해지지 않았다. 광복 전에 이 책이 있었다는 도서목록은 있었으나 행방이 묘연했다. 조사결과 이 책의 판본 중 인본이 3종이 존재했다. 그 중 가장 온전히 보존된 인본은 성암박물관 조병순 관장이 소장한 판본이었다. 나머지는 모두가 앞뒤로 훼손된 결본이었다. 사본도

3종이 확인됐지만 마멸이 심한 판본을 저본으로 사용하여 틀린 부분이 많았다.

시승들의 문학성 만날 수 있어

<백가의집>에는 당 말기와 5대, 북송과 남송 시대까지 시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적지 않은 시승(詩僧)들의 시구가 실린 것이 특징이다. 먼저 <백가의집>에는 제기(齊己), 지각(智覺), 지원(智圓) 등 신분을 밝힌 스님들의 작품이 실렸다. 제기 스님은 30회, 가도 스님은 23회, 지원 스님은 21회로 각각 10회 이상 수록된 30인의 시인으로 10위와 19, 20위에 올라있다. 이들 3인은 만당부터 북송의 전반기에 이끌려 대표적 시승으로 세속의 시인과 비교하여도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중 무본(無本) 스님은 환속해 가도(貫島)로 이름을 남겼으나 무본으로 실린 시구는 <백가의집>에만 현존하고 청 건릉시대에 정리한 <전당시(全唐詩)>에는 실리지 않았다. 또 가도로 남긴 시는 23구 중 7구가 현존한다. 이들은 시단을 풍부하게 북돋은 당대의 대표적인 시승으로 이들을 통하여 당시 시승의 위상과 불교시문학의 수준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승(僧), 또는 석(釋)으로 표시했으나 이를 밝히지 않거나 이름조차 애매하게 수록한 이들의 작품이 많다. 이들의 시구는 일부가 현존하고 있어

당송시대 詩 모은 <백가의집>

적지 않은 詩僧 작품들 실려

중국에 전해지지 않은 시 다수

고려가 東亞 교류 중심임 증명

쉽게 스님으로 확인 된다. 작가가 확인되지 않는 시구는 시의 내용과 이름을 대조해, 이미 알려진 고승으로 유추하는데 교연(皎然), 찬령(贊寧), 혜홍(惠洪) 스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밖에도 시의 내용과 이름이 범명으로 추정되는 것도 적지 않다. 무축(無則)과 법진(法振) 스님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의 이름은 <전당시>에 실려 있어 당의 시승으로 짐작된다. 법진 스님은 당의 대력과 정월 연간에 활동한 고승이며, 무축 스님은 활동연대가 불확실하다. 이밖에도 스님으로 추정되는 작가 명이 많다.

<백가의집>에 실린 시승들은 대부분 양자강 유역에서 활동하였고, 황하 유역에서의 활동기록은 드물다. 대부분이 선승이며 특히 오대의 선승은 남쪽의 10국에 머문 사실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들의 시구는 29% 수준으로 이는 당시 시인들의 시구가 현재 전해지는 비율과 다르지 않다. 주로 난세에 살았던 시승(詩僧)의 시와 북송 신법당에 속한 인물의 시가 구법당보다 전해지는 비율이 낮다. 이를 보면 고승끼리 교류가 속인보다 훨씬 활발하였다 고도 볼 수 있다.

<백가의집>에 보이는 고려의 위상

<백가의집>은 세속의 시는 물론이고 당과 송의 불교시를 연구하는 새로운 금광과 같다. <백가의집>을



조선 화가 윤두서가 그린 '노승도(老僧圖)'. 옛날 중국과 한반도에 시를 짓는 능력은 곧 수준 높은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척도였다. 당송 시대 시구를 모은 <백가의집>에는 시승의 시들도 대거 실려 있다. 스님들 역시 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깨달음을 오래 전부터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면 오늘날 중국에 전해지지 않은 시들이 고려에서 보존되었음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고려가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역할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전당시나 전송시에 실리지 않은 새로운 시구가 다수가 발견되고 있어 당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밝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안사의 난' 이후 당 현종이 촉으로 몽진한 이래 황하유역은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지의 지위를 상실했다. 동아시아 중세의 시작인 남북조시대에 중국본토는 문명의 위기를 겪었다. 양자강유역으로 경제는

몰론 문화의 중심이 바뀌고 한반도의 신라와 고려로 이동하여 계승되었다.

8세기 중반 '안사의 난'(755년)과 당 무종의 폐불(844년)과 오대의 혼란은 사상계에도 돌이키기 어려운 정도의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는 해상을 통해 양자강유역으로 이동한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유산을 충실하게 흡수하고 활용했다. <조당집(祖堂集)>이나 <경덕전등록(景德傳錄)>을 보면 당과 송의 선승들은 "불법이 해동으로 떠난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고려에서는 특히 당송시를 보존하고 이를 활용해 동아시아의 불교유산을 이룩해 나갔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가장 중요한 사상이었고 유학이나 토속신앙도 모두 불교의 그늘에 있었다. 고려시를 자세하게 파헤치면 그것이 곧 불교사였다.

예를 들자면 고려의 중요한 명절은 대부분 불교와 관련되었으며 그 날의 중요한 행사는 불교식으로 진행됐다. 국왕부터 일개 국민까지, 또 부모의 제사부터 국가적인 축제에 까지 중요한 부분은 불교식으로 수행됐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 만들어진 대부분의 유적이나 유물은 불교와 관련됐다. 서양의 중세 시대, 가톨릭을 제외하고 연구한다면 이 연구결과가 의미 없는 글자의 나열이듯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제외하면 영혼이 없는 저술이라 불릴 정도다.

새로운 문명의 보고로 자리해

1981년 필자는 고려의 과거제도에서 출제된 과학 기술에 대해 밝히며 고려는 동아시아의 고전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활용했다는 내용도 확인한 바 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이 동아시아 고대의 문화를 보존하고 그 가운데 시를 이용해 다시 동아시아 시문학 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문화를 창조해나갔다. <백가의집>에 인용된 새롭게 발견된 시구가 이를 증명한다.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황하유역보다 안정된 국가와 민족을 유지하였다. 황하유역인 중원에서 없어진 고대 동아시아 유산을 축적하고 보존해 중세에는 고려가 문명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다만 불행하게도 고려말기 왜구와 조선전기 임진왜란, 그리고 근대의 화이사상에 찌든 일부 지식인에 의해 고려의 유산이 평가 절하됐다. 고려시대의 문화유산 중 특히 불교 문화유산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소중함을 알지 못해 파괴되고, 혹은 일본으로 옮겨졌다. 고려의 화불과 사경(寫經)의 경우 8할 이상이 일본에만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유산의 이동은 마치 사하라와 이라비아 사막의 확장으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문명이 그리스와 로마로 전해지듯 또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문명의 중심이 되었다.

고려에는 고려뿐 아니라 당과 송과 몽골제국의 시문과 저술이 참으로 많이 전해졌고, 지금도 전하는 사례가 많다. 남송말기부터 몽골제국의 전반기까지 생존했던 '몽산덕이'(蒙山德異)의 저술은 물론 그가 불교의 관점에서 도교의 중심경전인 <직주도덕경(直註道德經)>을 풀이한 문헌이 한국에만 전해지고 있다. 몽산덕이의 간행선은 조선시대의 불교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고 함허기화의 저술에도 그대로 답습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 후 몽산덕이의 저술이 다시 임진왜란 중에 강남의 종군자에 의하여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 명말 네 분의 고승(明末四大師)의 저술에도 영향을 주었다.

<백가의집>에 실린 시구는 향후 연구과제가 된다. 작가 하나하나의 작품이 충분한 논문거리다. 아직 국내의 학계는 극히 일부, <동문선>에 실린 작품에 의존한 연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심조시와 함께 전당시와 전송시에 빠진 다른 자료를 종합하고 일본에서 정리한 <천제가구(千載佳句)>등과도 비교할 과제가 남아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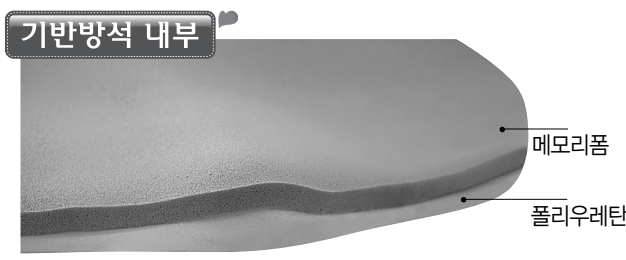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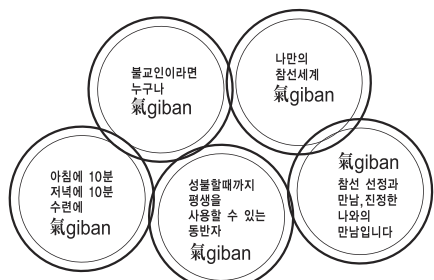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진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입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희담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